제 28 호 유능한 교수의 핵심 특성 1

학생들이 강의 평가서에 지적한 코멘트를 정돈하여 보았습니다.

00교수님은 학생들이 이 과목에 흥미를 갖도록 해 주는 능력이 있다. 00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, 학생들의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.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. 이 대학에서 가장 우수하신 교수님이라고 생각한다. 또 학생들에게 우수한 수준,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신다. 우리들의 엉덩이를 힘껏 차 주시는 분이다.

00박사님은 당신이 가르치시는 과목에 엄청난 열정을 보이신다.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무척 잘 아신다. 덕분에 학생들도 덩달아 이 과목에 열정을 갖고, 또 수업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된다.

00교수님은 정말 열심으로 가르치십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에 정말 관심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. 교수님의 열성이 학생들의 열정의 불을 지피는 것 같습니다.

00교수님은 학생들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다. 단지 교과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이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, 또 양심적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.

00교수님은 xx과목을 학생들이 정말 잘 배우고 싶도록 동기를 훌륭하게 부여해 주신다. 또 학생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신다. 00 교수님은 교수직의 “마이클 조단“이시다.

00교수님은 지속적인 학습과, 실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힐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연습을 강조하신다. 학생들이 언제나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시고, 학생들을 얼간이 취급하시지 않는다.

00박사님은 그 분의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신다.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게 해 주고, 또 기꺼이 도움을 주신다. 학생이 노력하는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고, 질문이 있으면 수업 외에도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신다.

00교수님은 단지 강의만 하시지 않는다. 학생들이 토론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도록 요구하신다. 또 시험을 칠 때에도 학생들이 단지 공식을 따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출제를 하신다.

00교수님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이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 교수님을 찾아보기를 원하신다.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정말 잘 배울 수 있게 가르치신다.

00교수님은 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자이시다. 00교수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신다. 학생들이 단순히 정답이나 틀린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더 관심을 보이신다.

매번 강의를 듣고 교실을 나설 때 나는 정말 <00학>을 이해했다는 느낌이 든다. 00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는 모든 훌륭한 엔지니어가 꼭 배워야 할 “질문하는 방식“이 담겨있다.

00교수님은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말 잘 해 주신다. 00교수님은 학생들이 모두 수업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진도를 나가지 않으신다.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데, 질문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00교수님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쏟으신다.

00교수님은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하신다. 00교수님만큼 xx와 xx에 대해 잘 이래하는 사람은 드문 것같다. 그 분의 수업은 정말 재미있다.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탁월하시다. 탁월한 명강의 교수님이시다.

00교수님이 교재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학습을 하도록 하시는 열정은 정말 효력이 있다.

00교수님은 단지 이 과목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해 가르치는 데 정열적이시다.

00교수님은 굉장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신다.

00교수님은 박력있는 강의를 하신다. 매 강의실에 들어오실 때 가르치 준비가 되어 있다. 수업에 대한 열정이 강의 중에도 보이지만 강의 내용을 실험실습실에서 보여주실 때에도 잘

나타난다. 00교수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공학도가 아니라 지성적인 공학도가 되도록 고무시켜 주신다.

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어보시는 능력이 있다. 한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다가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으면 학생이 원하는 바를 잘 고려한 다음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설명을 해 주신다.

© Peck Cho, 1999